

단체교섭속보

- | | |
|---|-------------------|
| 주 | 1. 정년연장, 신규채용 |
| 요 | 2. 고정OT 월 20시간 |
| 요 | 3. 특별상여금 영업이익 15% |
| 구 | 4. 노동조합 활동 보장 |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이 현 우 / FAX(031)680-6865 / 발행일 2026년 7월 29일(수) / 제 02호

2차

- ◆ 교섭 일시 및 장소 : 2026년 7월 29일(수) 10:00 ~ 10:30. 평택공장 본관회의실
- ◆ 참석
 - 노측 : 김병철 교섭대표 외 14명 □불참 : 이시열 교섭위원(기자 간담회)
 - 사측 : 김현욱 교섭대표 외 8명 □불참 : 없음
 - 사회 : 이원상 교섭위원(사측)
 - 차기교섭 : 실무 논의

조합원 뭇은 왜 감추는가

26년 상반기 경영실적 설명회

2차교섭은 사전 실무협약에 따라 26년 상반기 경영실적 설명회로 진행되었다. 회사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촬영과 기록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고, 끝나면 자료를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공시되지 않은 자료라는 이유였다.

금속노조 부위원장장은 2025년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거뒀고, 2026년 또한 최대 영업이익률을 목표로 하고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계속해서 노측이 올 해 임금 인상분과 일시금 반영액을 질의하자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자료는 부실, 인터넷보다 못하다

노측은 사측이 배포한 자료가 이미 공개된 인터넷상 자료보다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SUV 관련 수주 성과나, 국내 일부 제품이 해외로 이관됐다는 내용은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확인되는 사실인데, 정작 교섭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었다.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의 2029년 북미/한국 대량 양산 계획 역시 조합에 사전보고 된 적 없다는 사실도 이 자리에서 드러났다.

성실교섭 의무, 말이 아닌 자료로 증명하라

노사 교섭과 협약은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원칙 위에 서있다. 그러나 이미 공개된 인터넷상 자료보다도 못한 자료를 내놓고, 사전 공유도 없이 비밀 엄수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그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역대 최대 실적 목표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조합원에게 돌아올 몫과 회사의 주요 결정은 뒷전으로 미루는 태도로는 성실한 교섭이라 할 수 없다.

지금까지 해 왔던 틀에 박힌 형식적인 사업계획 발표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자료를 제공하라.

- 교섭 주요 내용 -

□ 노 : 교섭에 앞서 어제 평택에서 또다시 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 외주화 사태가 일어났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6년 상반기 경영실적발표]

□ 노 : 하반기 사업계획이 누락되어있다. 대체적으로 '상반기는 이정도했다'가 전부인 것 같다. 리스크만 나열되었는데 이 자리가 리스크를 통해 노동조합을 압박하는 자리인 가. 공시 될 자료 외에는 없어보인다. 사측이 설명하기 좋은 자료만 넣은 것으로 보인다.

□ 사 : 그렇지 않다. 매년 하던 기준으로 준비되었다.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올 상반기 사업계획 설명회 진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계획을 자료로 준비했다. 이후 필요한 자료를 실무를 통해 전달해주면 차기 설명회때는 반영하겠다.

□ 노 : 1분기 실적과 관련된 자료는 인터넷 검색만해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금일 설명회 자료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자료보다 훨씬 부족하다. 인터넷에 있는 자료만 봐도 1분기 수주성과, 해외 생산 이관이 있다. 이 부분 설명바란다.

□ 사 : 노동조합의 요구 잘 알겠고, 공시 관련된 부분 다시 확인해서 공유하겠다. 추후 미흡했던 부분은 노동조합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한 보강하여 진행하겠다.

□ 노 : 인터넷 상이나 언론에 모두 공개되어있는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자리는 대외 비라 할 수 없다. 대외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을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 노 : 25년도 역대 최대 영업이익으로 알고있고, 26년도 목표치를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인다. 다만 물량계획이 빠져있는 부분이 유감스럽다.

□ 노 : 해외 공장에 대한 부분이 전부 빠져있다. 인터넷상 자료를 봐도 해외 공장이 14개다. 로봇 엑츄에이터도 지속적으로 얘기해왔던 부분이다. 공시자료에는 2028년까지 북미,한국에 대량 양산 체계를 구축한다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떻게 구축되는지 공유가 전혀 없다. 기존 해왔던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추후 3/4분기 노사협약에 충분한 설명을 하라.

□ 2026년 2/4분기 전사 노사협의 2차 회의는 실무적 접근이 되지않아 미개최 되었습니다.